

시작! 새벽기도회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탄생 한 후 4개월 만에 어제 처음 새벽기도회로 모였다. 내 개인적으로는 거의 2년여 만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새벽 예배였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었는지 모른다.まずは 새벽 5시 30분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얼굴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겨울이 되면 더 힘이 들었다. 그 이유는 새벽기도회로 교회에 갈 때에 늘 성도들이 오기 1시간 혹은 이전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특별히 더 부지런해서가 아니다. 히터(Heater)를 켜야 했기 때문이다. 하루 전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늘 히터를 꺼 놓았다.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돌려야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춥지 않아 기도하며 은혜 받을 수 있었다. 다른 한 가지는 음향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늘 먼저 교회에 가서 크고 꺼야 했다. 그래서 2층을 왔다 갔다 하며 고생 아닌 고생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도 한두 가지만 연결하면 필요한 것들을 모두 사용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깨끗한 바닥이다. 무릎을 꿇어도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꼭신하고 깨끗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금과 같은 시간인가? 실은 시설이 편하고 따뜻해서 좋다는 것 보다 새벽 시간에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새벽의 시간에 드리는 기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신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 감격인가? 지금은 매일 새벽 기도회로 드리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이 100%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각자가 처한 곳에서 기도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아침 시간을 드리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끈을 이어가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에 귀한 선물을 하나 더 주셨다. 토요일 새벽기도회.

하나님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편 3절)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바로 기도하며 새벽을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 그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누리며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더욱 강하게 역사 될 것이다. 우리교회의 세위장과 부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무릎이 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맞는 새벽 기도회는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분명하다. 하나님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